

지역 소식통

김제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무료 택배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시립도서관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무료 택배 배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꾸러미는 베이비(18개월까지), 플러스(19~35개월), 보물상자(36개월~7세) 등 총 3단계로 나눠 김제에 주소를 둔 영유아 아이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존 직접 도서관에 방문을 통해서 배부받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제는 집에서 책꾸러미 택배를 받아 볼 수 있다. 물론, 기존과 같이 도서관에 방문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책꾸러미 택배 배부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간차에 따라 1차(9월 발송), 2차(11월 발송), 3차(12월 발송) 3차례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김제시립도서관 아동실(063-540-4188)로 전화해 수령가능 여부 확인 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gimje.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등본과 함께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새일센터는 7일 전북광역새일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광역새일센터와 협업으로 창업전문교육 강사를 무료 지원하는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교육'은 건강한 라이스 디저트 제조양성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15명 전원이 참석해 취·창업 의지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교육'은 창업 마인드, SNS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및 사례, 여성 창업 분야의 성공 마케팅 및 창업시장의 트렌드 분석, 창업 준비과정의 어려움과 직면한 난제들과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자동차업종 고용 활성화 지원

## 김제시,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추진... 23일까지 신청

일자리 채움 지원금·일자리도약 장려금·복지 지원 등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2024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동차업종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동차업종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접수 기간에 사업 수행기관인 (주)캠텍종합기술원 누리집([www.camtec.co.kr](http://www.camtec.c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앞서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자동차-중소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이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선정됐으며 도·시 컨소시엄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은 지역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및 근로자로, 주요 사업은 △일자리 채움 지원금, △일자리 도약장려금, △복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자동차업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하면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도

약장려금은 만 35~59세 이하 신규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120%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면 기업체에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개인별로 각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포함한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업종의 일하청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자동차업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산업 고용 활성화와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종합우승을 위한 필승 결의 다져

###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결단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김제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4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종합우승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결단식은 정성주 시장, 서백현 시의회 의장,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과 선수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출전 보고를 시작으로 체육회기 수여, 격려사, 대표선수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시선수단은 이번 대회 39개 종목 중 학생부 농구 종목을 제외한 총 38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812명의 선수단이 김제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지난해 김제시가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

을 거둔 만큼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묵묵히 힘든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이 부상없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수 및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도 출범한 이후 처음 맞는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잔류농약 분석능력 국제적 '인정'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주관, 국제 숙련도 평가서 우수성 입증

완주군이 잔류농약 분석능력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7일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관리실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하는 '국제 잔류농약 분야 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의 국제 숙련도평가는 분석 기관의 분석력을 인증하는 평가 체계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정부기관 및 민간분석기관 등 57개의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오이(Cucumber) 시료를 분석해 참여기관들의 오차범위를 산출해 표준점수(z-Scores)가 ±20이내면 '만족', ±2~3이내 '의심', ±3을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분석 능력을 평가했



다. 0점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완주군은 현재 분석 중인 463종의 농약 성분 중 시료에 포함된 12종의 농약을 모두 검출해 12종 '만족' 평가를 받았으며, 사이아조프라미드

(Cyazofamid), 엔도설판 알파(Endosulfan alpha), 메탈락실(Metalaxyl) 3개 성분에서 0.0 값을 판정, 나머지 성분들도 0.1~0.8 사이를 보여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출범 이후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안전관리실'에서 잔류농약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1,500점 이상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생산, 유통, 공공급식 등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속적인 국내의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완주군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양질의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여름철 안전수칙 준수 당부

## 동상면 계곡 등 찾아 심폐소생술 실습·안전 홍보물 배포

완주군이 지난 6일 자율방재단, 경찰, 소방, 행정, 안전요원 20여 명과 함께 피서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상면 계곡일원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물놀이 안전사고와 폭염 대책을 안내하며,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익수사고시 응급대처 필수사항인 심폐소생술 실습과 안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을 당부했다.

경로당에서는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하고 뜨거운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자주 물을 마시는 등 안전하게 생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완주군은 최근 연일 인명사고 발생함에 따라 문성철 부군수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전대



책을 재점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의회, 선진의회 구현 위한 벤치마킹

## 김재천 부의장, '완주형 아침한끼 사업' 추진 위해 광주 방문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6일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를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광주광역시 '간편한 아침한끼'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참신한 정책을 군정에 접목시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이슬기 주무관 및 광주광역시자치활성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3년 아침식사를 행하기 힘든 산단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아침밥을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을 돕고, 식비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전국 최초로 '간편한 아침한끼'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은 물론 경제 부담에도 기여하고 있는 '간편한 아침한끼' 사업장 2곳(철단·하남산단)을 꼼꼼하게 둘러보았다.

이어 이들은 '간편한 아침한끼' 김밥과 샌드위치, 컵밥 등을 먹으며, 자활센터 관계자의 사업 추진배경 등에



대한 현황취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번 벤치마킹으로 선진 정책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접목 방안과 정책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향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완주형 아침한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형 아침한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